

## 김보희: 자연이 되는 꿈

### KIM BO HIE: Becoming Nature



투워즈 Towards  
2017  
천 위에 채색 Color on fabric  
160x130cm

#### 전시개요

전 시 명 : 김보희 개인전 '자연이 되는 꿈'  
전시기간 : 2017년 4월 7일(금) - 4월 30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전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36점

#### 담 당

김한들, hkim@hakgojae.com  
02-720-1524~6

####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70407-20170430 김보희 자연이 되는 꿈

### 1. 전시개요

학교재는 2017년 4월 7일(금)부터 4월 30일(일)까지 김보희(1952~, 서울) 개인전 '자연이 되는 꿈'을 연다. 근작과 구작을 모아 학교재 전관에서 열리는 대형 전시다.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년을 맞은 김보희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교재 본관에서는 근작 19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새로운 생명과 시작을 의미하는 씨앗과 열매를 확대하여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김보희의 작품 세계가 새로이 나아가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기회다. 학교재 신관에서는 구작 17 점을 전시한다. 김보희 특유의 반복적 세필과 차분한 색채가 돋보이는 명상적 풍경들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김보희는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25년간 재직하며 한국 미술 인재 양성에 힘썼다. 2017년인 올해 교수로서 정년을 맞는다. 학교재갤러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열린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1982년과 1983년에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1992년에는 월전미술상을 수상했다.

## 2. 전시주제

### 삶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김보희의 자연

김보희는 이십 대였던 1970~80년대부터 자연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양수리에 있는 이모 덕 근처의 풍경을 그린 것이 첫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먼발치에서 관망하는 듯한 시선으로 자연을 그렸다. 눈에 보이는 경관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90년대 이후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본 바다 풍경이 좋아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자리한 가느다란 수평선을 강조하여 그 안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다. 2005년부터는 화폭을 따라 거처를 아예 제주도로 옮겼다. 최근 김보희의 시선은 자연의 내면으로 침투하고 있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접어들며 더욱 성숙하고 무르익은 시선으로 자연을 관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현하는 대상과의 거리가 유달리 가까워지고, 관찰자로서의 시선이 자연 내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면 위에 상상적 요소들을 더욱 자유롭게 가미한 점도 눈에 띈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화면 위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보희의 근작 19 점을 선보인다. 근작은 김보희의 작품 세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감을 시사한다. 자연에 대한 경외와 예찬을 강조했던 시기를 지나, 자연의 본질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자연의 근원이자 새로운 생명의 상징인 씨앗과 열매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대상에의 몰입과 재해석을 통해 작가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려는 면모가 돋보인다. 전체적인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근작에 이룰수록 자연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점이 눈에 띈다. 김보희의 인생은 이제 이순(耳順)의 나이를 지나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종심(從心)을 향해 간다. 삶이 성숙해져 갈수록 그의 화폭은 자연의 본질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하며 자연과 동화되어 물아일체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 전통 한국화를 기반으로 구축한 특유의 화법

김보희는 한국화를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시적인 화면을 구성한다. 생생하고도 차분한 색채와 단아한 여백이 어우러진 명상적 풍경이다. 김보희의 작품은 전통적 양식을 토대로 하여 한국화를 현대화시킨 좋은 예로 꼽힌다. 한국화의 채색 기법을 사용하지만, 캔버스를 이용하고 아크릴이나 바니시 등 서양화 재료도 다양하게 수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구축한다. 1986년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채묵의 가능성 展'에서 한국화 흐름의 양상을 대표하는 신예 작가로 선정되며 일찍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보희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근작에서 여백의 미가 특히 돋보인다. 초충도나 청과(淸果)도를 떠오르게 하는 단아한 화면 구성이다. 화면을 채우지 않고 빈 곳을 남기는 것은 전통 한국화에서 보이는 대표적 특징이다. '비움으로 채운' 여백을 강조하여 절제의 미학을 드러낸다. 김보희는 씨앗과 열매, 작은 식물 등을 화면에 담았다. 대상에의 몰입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없애고 여백을 남겼다. 화면에서 대상의 형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 보는 이의 시선이 집중된다. 동시에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보희의 제주도 시기 풍경화에서도 전통적 화면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신관에 전시한 작품 '그날들'(2011~2014)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작품 속의 시간이 낮에서 밤으로 변화한다. 서사적 흐름을 하나의 화면 안에 담아내는 구성은 전통 한국화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조선 후기 정선의 산수화를 떠올려볼 수 있다. 전통 산수화의 투시법인 평원법을 차용한 원근 표현도 눈에 띈다. 풍경을 그릴 때 전체 화면을 모두 정면에서 본 것처럼 묘사하는 방식이다. 평원법은 송나라의 곽희가 주장했던 삼원법 중 하나로, 자연의 수평적인 광활함을 강조하는 데 적합하다.

### **김보희의 십수 년 작품 세계를 망라하는 대형 전시**

김보희는 학고재에서 '인 비트윈'(2006), '투윙즈'(2013) 등의 개인전을 통해 작업의 흐름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는 김보희가 그동안 구축해 온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자리로, 학고재 전관에서 열리는 대형 전시다. 본관에서는 근작을, 신관에서는 구작을 중심으로 지난 십수 년간의 작품 세계를 망라하여 선보인다. 학고재 본관에서는 김보희가 씨앗과 열매를 확대하고 재해석하여 그린 근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상상 속 씨앗과 열매의 이미지에 새 생명의 시작에 대한 설렘과 환상을 담았다. 학고재 신관에서는 김보희의 작품 세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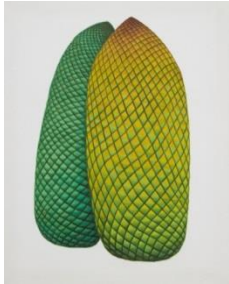
김보희는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년을 앞두고 있다. 오롯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품 활동에 있어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시기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작업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고자 한다. 김보희의 작품 세계는 새 생명력을 가득 품고 또 다른 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3. 작품세계

#### 대표작품



**투워즈**  
2017  
천 위에 채색  
160x130cm



**투워즈**  
2017  
천 위에 채색  
160x130cm

학교재 본관에서 자연의 근원이자 새로운 생명의 상징인 열매와 씨앗들이 담긴 김보희의 근작 19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김보희는 주변의 자연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리고 그만의 상상력을 발휘한다. 보는 방식을 달리하면 자연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다가온다. 작은 열매 하나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 표면의 기하학적 무늬가 시야를 가득 채운다. 김보희가 새로이 표현한 대상들은 원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작가의 상상에 의해 변형되어 그려진 것들이 많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대상에 투영하여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열매 하나, 씨앗 한 톨은 그 자체가 생명력으로 가득한 하나의 우주다.



**투워즈**  
2017  
천 위에 채색  
160x130cm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식물들도 저마다 고유한 생김새와 그들만의 질서를 가지고 자라난다. '투워즈'(2017) 연작에 등장하는 키위 나무도 그렇다. 김보희는 어느 날 키위 나무를 살펴 보다가 줄기와 이파리에 키위 열매 같은 털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자라나는 줄기에서부터 앞으로 맺게 될 열매의 모습과 닮아있는 것을 보고 자연의 질서에 신비로움을 느껴 화폭에 옮겼다.



**그날들**  
2011-2014  
천 위에 채색  
400x1460cm (27ea)

김보희의 화면은 자연으로 향한다. 실재하는 풍경을 보고 그렸지만 유독 환상적이다. 사실적으로 묘사한 식물들 주위에 상상 속 열매와 꽃이 함께 자라난다. 사실성과 추상성이 미묘하게 뒤섞인 그의 풍경은 마치 현실과 환상이 만나는 지점 어딘가를 포착한 듯하다.

수평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대형 회화 '그날들'(2011~2014)에서



투워즈

2011

천 위에 채색

200x600cm (3ea)

자연의 광활함이 유독 돋보인다. 전체의 화면을 모두 정면에서 본 것처럼 그리는 원근 표현으로, 전통 동양 산수화에서 사용되는 평원법을 떠올리게 한다. 푸르른 자연이 가득히 펼쳐진 화폭 안으로 자연스레 걸어 들어가 그와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 4. 작가소개

김보희는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생 시절에 동양화를 전공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동양화를 그리게 되었다. 채색화는 일본의 잔재라는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생 때부터 채색을 많이 했다. 국전에도 채색화를 출품하여 특선을 세 차례 받았다.

전통 한국화를 기반으로 서양화 재료를 다양하게 수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구축했다. 1986년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채묵의 가능성展'에서 한국화 흐름의 양상을 대표하는 신예 작가로 선정되며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보다 견고하게 발전시켰다.

학교재갤러리(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열린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1982년과 1983년에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1992년에는 월전미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작업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30여년간 재직했으며 2017년인 올해 교수로서 정년을 맞는다.

##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상의 파라다이스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김보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에 살기 시작하면서 밝은 햇살, 토종식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광 등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제주도 자연을 담은 작품을 제작해왔다. 1990년대 점묘법에 기초하여 평면성이 강조된 서정적인 강변산수와는 달리 제주도 작업은 동식물로 가득 찬 에너지가 충만한 원시림을 다루고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점차 변화하였다. 강변산수에서는 자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하려는 태도였지만, 제주도 시기부터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대상과의 거리가 보다 가까워졌다. 작가는 제주도 시기부터 생명의 근원으로서 원형의 자연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 작품 속의 모든 존재는 색과 형태를 뚜렷하게 지니면서 저마다의 기운을 뿜어내게 되었다. 필치가 속도감 있게 표출되거나 질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양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동식물들은 화면의 전면에서 살아 숨 쉬는 드라마를 이루어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작업에서 꽃이 만개하거나 성하(盛夏)의 녹음(綠陰) 작업이 많은 이유는 우주와 자연의 기운이 가장 활성화된 상태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모든 우주와 자연에는 나름의 주기, 법칙과 체계가 있다고 믿으며 어떠한 존재이건 간에 스스로 지닌 원리의 최정점에 달하면 자연스럽게 완벽한 모습을 발산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작가에게 자연이란 압도적인 경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추억을 담은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자신이 본 풍경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담겨진 부분을 화폭에서 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폭으로 이루어진 대형화면은 자연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을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근래 들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오롯한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자연을 새롭게 관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근작들은 제주도 초기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자연에 대한 환희, 경외, 감탄, 찬가 너머 보다 근본적인 삶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이제 작가는 모든 생명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예리한 직관과 관찰력

뿐만 아니라 대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려는 내적 관조를 함께 화폭에 담고자 한다. 그리하여 근작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대상에 대한 몰입과 일상의 반추(反芻)라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몰입이 가장 잘 반영하는 이미지는 바로 씨앗이다. 작가는 씨앗이 떨어지거나 발아하는 순간과 찰나의 장면을 포착하고자 한다. 화면 속 씨앗은 실제로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작가의 환상에 의한 이미지이기도 하다. 작가가 씨앗 형태 그대로를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상에 의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작가에게 씨앗이란 자연의 순환 체계를 지님과 동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씨앗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임과 동시에 생명의 소멸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한다.

또한 시들어가는 꽃잎, 빛바랜 화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변화이다. 싱싱한 꽃잎과 시들어가는 꽃잎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정원의 풍경이 흑백으로 표현되는 화면은 삶과 생명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바니타스(Vanitas)적 관점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만물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무위자연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어느덧 삶과 죽음, 유와 무 등 상반된 개념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개념 자체를 자연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는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씨앗과 꽃잎은 대개 한두 개로 제한되어 고요한 정적 속에서 빛과 색을 발한다. 내밀한 관조와 정밀한 관찰은 화면 전면에 씨앗을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화면에서 배경을 없애고 여백을 확대하는 형식을 낳게 하였다. 화면 내외부 공간 속에서 대상과 작가와의 사이를 교차하는 시선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관람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화면 속 대상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한다. 대상의 전면적인 등장과 여백의 강조는 단순한 구성을 만들어내는 반면 세밀하면서 신비롭고 동시에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보희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작업 이외에 숫자와 공간에 주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숫자는 작가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시간의 경과를 담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우주의 일정한 법칙을 보여주는 식물과 자연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숫자와 공간의 조화는 삶의 원칙을 의미하는 또 다른 주제로 등장하였다. 사실 작가가 숫자 작업을 시작한 출발점은 시간의 경과를 시계를 통해 확인하고, 세월의 흐름을 나이라는 숫자를 통해 느낀다는 단순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숫자들은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혼재된 다층적인 구조에서 드러남으로 인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추억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예술가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다. 단순히 흥밋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作風)이나 작업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또 다른 태도와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삶을

보다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김보희의 근작은 상상력, 호기심과 내적 성찰에 기반하여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기에 작가의 작업세계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6. 작가약력

- 1952 서울 출생  
1974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졸업  
1976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순수미술과 석사 졸업  
현재 서울, 제주에서 거주 및 작업 중

### 개인전

- 2017 자연이 되는 꿈,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5 투위즈, 트리니티갤러리, 서울  
2013 투위즈,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1 투위즈, 스페이스 캔, 베이징  
2010 투위즈, 스페이스 캔, 서울  
2008 갤러리 인, 서울  
2006 인 비트윈,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4 카이스갤러리, 서울  
2002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01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00 명상의 풍경,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1998 카이스갤러리, 서울  
1997 신생당화랑, 도쿄  
1995 월전미술관, 서울  
1991 갤러리 63, 서울  
1988 갤러리 현대, 서울  
1986 동덕미술관, 서울  
1980 출판문화회관, 서울



**단체전**

- 2016 자연, 그 안에 있다, 뮤지엄 산, 원주
- 2015 바보전(傳), 복합문화공간 예무, 서울  
 경기 팔경과 구곡: 산, 강, 사람,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14 정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사유로서의 형식 - 드로잉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청색예찬 - 블루, 한국도자재단, 이천
- 2011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갤러리이즈, 서울
- 2010 아름다운 산하, 예술의전당, 서울  
 정림리를 거닐다, 박수근 미술관, 양구  
 33주년, 선화랑, 서울
- 2009 현대미술의 비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예술의전당, 서울  
 월전미술상 수상작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 2008 한국현대회화, 예술의전당, 서울  
 평론가선정 현대작가 55인, 예술의전당, 서울  
 자연성과 신비성의 조화 - 어울림, 신미술관, 청주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림지 않으랴(국립현대미술관 & 장흥별곡문학동인 기획),  
 천관문학관, 장흥  
 문화유전자, 송창미술관, 베이징  
 현대미술의 흐름, 안양예술공원, 안양  
 어 뉴+, 김현주갤러리, 서울  
 나우, 랜드스케이프,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7 한국화 1953~2007,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세 가지 블루, 갤러리 126-1, 서울
- 2006 한국화의 힘, 예술의전당, 서울  
 고요의 숲,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5 신소장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화 - 비전 2005, 예술의전당, 서울  
 지필묵 놀이 미술관, 금호미술관, 서울  
 김보희 & 민병헌, 김현주갤러리, 서울
- 2004 한국미술, 예술의전당, 서울

- 한국의 정신, 아트파크, 서울
- 2003 진경 - 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환경미술 - 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이중유동(二中有同), 공평아트, 서울  
 한국현대회화, 방글라데시 실파칼라 아카데미, 다카  
 21 세기 한국현대미술 - 기대의 지평, 선화랑, 서울
- 2002 기운생동, 학고재갤러리, 서울  
 블루, 갤러리라메르, 서울  
 동양화 새 천년, 공평아트, 서울
- 2001 동양화 새 천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가와 신진작가들, 파리국립미술대학, 파리  
 원로중진 여류작가 초대전, 여주군민회관, 여주
- 2000 새 천년 대한민국의 희망,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1 세기를 여는 지성과 감성, 예술의전당, 서울
- 1999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채색화 - 그 현대적 해석, 현대아트갤러리, 서울  
 봄의 소리, 선화랑, 서울  
 죽음 뒤의 기쁨, 한수경갤러리, 서울  
 아! 대한민국, 갤러리 상, 서울
- 1998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우리 들꽃, 사비나갤러리, 서울  
 한국화 126 인 부채그림, 공평아트, 서울
- 1997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6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도시와 영상 1988~200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오늘의 한국화 - 그 맥락과 전개, 덕원미술관, 서울  
 한국의 이미지, 아오테아센터, 오클랜드, 뉴질랜드
- 199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회화 50 년 조망, 서울갤러리, 서울  
 현대한국화, 민족문화궁, 중국  
 진채화의 연원, 성립미술관, 타이중, 대만
- 1994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삶과 예술, 갤러리 미건, 서울
- 1993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한국자연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한중미술협회 교류전, 예술의전당, 서울
- 자연과 인간, 서울갤러리, 서울
- 한국 지성의 표상,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 1992 '92 IAA 서울 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 생활이 있는 풍경, 갤러리 63, 서울
- '92 한국미술의 상황과 진단, 공평아트, 서울
- 1991 '91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0 개관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 한국 미술 - 오늘의 상황, 예술의전당, 서울
- 1989 '89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서울현대한국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동방의 빛, 베를린시립미술관, 베를린; 부다페스트갤러리, 헝가리
- 80 년대의 여성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 1987 오늘의 회화 14 인의 시각, 한국화랑, 서울
- 1986 채색의 표정 - 한국화 채묵의 초점 II, 동산방화랑, 서울
- 1985 '85 청년작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83 제 19 회 아시아 현대미술전, 동경도미술관, 도쿄
- 1982 채연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수상**

- 1992 월전미술상, 월전미술문화재단
- 1983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한국미술협회
- 1982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한국미술협회
- 1981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 1980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1976~78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1975 백양회 공모전 현대미술관장상, 국립현대미술관
- 1974 백양회 공모전 백양회상, 국립현대미술관
- 1973 백양회 공모전 장려상, 국립현대미술관